

# 시황예측기관들 내년까지 선박증가 문제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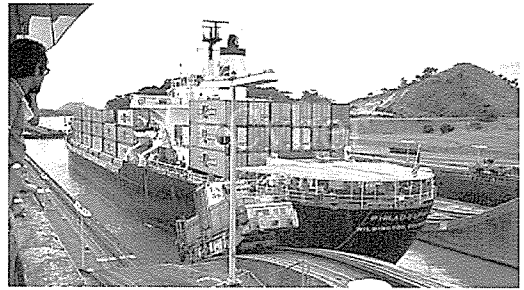
## Drewry, 2006년 선박증가율 11.8%로 전망

### Clarkson, 선박과잉률 당초 예상보다 낮아

세계적인 해운시황 예측기관인 Drewry Shipping Consultants와 Clarkson Research Studies는 최근 올해와 내년의 컨테이너 운송수요 전망을 수정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업계가 우려하는 만큼 선박증가로 인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Drewry에 따르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하여 1억5,980만 TEU에 달하는 반면, 선박량은 9% 늘어난 940만TEU를 기록하여 물동량 증가율이 선박량 증가율보다 2.9% 포인트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물동량 증가율이 7.7%, 선박 증가율이 11.8%로 수요증가가 공급보다 4.1% 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4분기 말에 발표했던 올해 물동량 증가율이 선박공급 증가율보다 2.2% 포인트 높고, 내년에는 공급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5.9% 포인트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낙관적인 예측이다.



Drewry는 2006년까지는 정기선 시장의 수요 공급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Clarkson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선박량보다 1.4% 많고, 내년에는 선박량이 물동량을 2.5%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Clarkson의 전망 또한 당초 예측치인 올해 선박대비 물동량 1.3% 초과, 2006년 물동량 대비 선박량 5.5% 초과보다 낙관적인 수치로서 전반적인 시황이 오는 2006년까지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대만, 모든 선박 P&I 보험 가입 강제화

### 5,000G/T 이상 책임한도 1억3,100만\$

대만이 7월부터 모든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만 해양오염방지법(Marine Pollution Control Act 2000)에 따라 선주는 대만 해역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 일정한 책임한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선박톤수가 150-5,000G/T의 유조선은 660만달러, 5000G/T 이상은 1억3,100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50G/T가 넘는 화물선은 최대 51만2,000달러까지 지급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만 당국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만에서 P&I Club 가입증서를 검사할 예정으로 있는데, P&I Club의 한 대리인은 이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사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